

# 기타 만성합병증 감염질환 고혈당은 감염에 취약해 정기 검사, 예방 접종 권장

당뇨병환자에서는 고혈당 자체가 감염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되며, 혈관병증이 동반해 각 조직으로의 혈액 공급이 감소되어 영양 및 산소공급 또는 적절한 면역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감염증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한다.

## 호흡기감염

호흡기의 주요 감염질환은 폐렴과 폐결핵이다. 여기에는 조절되지 않는 높은 혈당과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영향을 미친다. 폐렴은 주로 입안의 세균이 폐로 흡입되어서 생기는데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세균에 대처할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폐렴이 잘 걸린다. 폐렴에 대한 치료는 원인균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 투여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혈당조절을 잘 하는 것이 제일이고, 입안을 깨끗하게 하며 정기적인 독감·폐렴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한다.

폐결핵은 우리 몸의 저항력이 감소되었을 때 폐에 감염 되어있던 잠재된 결핵균이 활성화 되어서 발병한다. 폐결핵이 있는 당뇨병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지며 이로 인해 혈당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고혈당은 결핵균이 성장하는데 좋은 조건이 되어 결핵균이 전신으로 퍼져 다른 장기에도 결핵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발병 즉시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 요로감염

또한 당뇨병환자에서 급성 신우신염이 일반인에 비하여 5배 정도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상이 없을 수가 있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느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드물게 나타나지만 심한 괴사성 감염증이 발생하여 신장, 신우, 요관, 방광 등에 가스를 형성하는 기종성 요로감염은 환자의 9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 당뇨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뇨병환자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변색이 뿌옇게 보이거나 불쾌한 소변냄새, 미열 등이 나타난다면 소변검사를 통해 요로감염 여부를 확인해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피부감염

피부 자체에도 혈관이 있어 당뇨로 인해 피부혈류가 감소하여 피부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나 상처의 회복이 나빠지게 된다. 특히 당뇨병환자에서는 발의 근육들이 위축되어 굳은살이나 티눈이 잘 생기는데 집에서 스스로 제거하다가 상처가 나거나 이차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당뇨병자체로 인해 피부가 가려워서 긁게 되는데, 긁는 행위로도 염증반응이 일어나거나,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